

조사보고서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 조사

2015. 2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조사 결과	2
1. 기업호감지수	2
2. 기업에 대한 호감·비호감 이유	5
3. 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6
4.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민인식	7
III. 시사점	8
※ 참고자료(계층별 CFI)	9

I. 조사 개요

- 조사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 조사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 조사시기** : 2014년 12월 22일(월) ~ 2015년 1월 16일(금)
* 2003년 하반기부터 매년 2회 조사 실시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오차범위 ±3.1%
- 응답자 특성**

기업구분	빈도수	백분비
전 체	1,003	100.0%
<input type="checkbox"/> 성 별		
남 자	515	51.3%
여 자	488	48.7%
<input type="checkbox"/> 연 령 별		
20 대	232	23.2%
30 대	279	27.8%
40 대	253	25.2%
50대 이상	239	23.8%

- 기업호감지수 산정방식**

$$\text{기업호감지수(CFI)} = \frac{\text{전반적 호감도} + \frac{\text{생산성} + \text{국제경쟁력} + \text{국가경제기여} + \text{사회공헌} + \text{윤리경영}}{5}}{2}$$

* 호감 100점, 반반 50점, 비호감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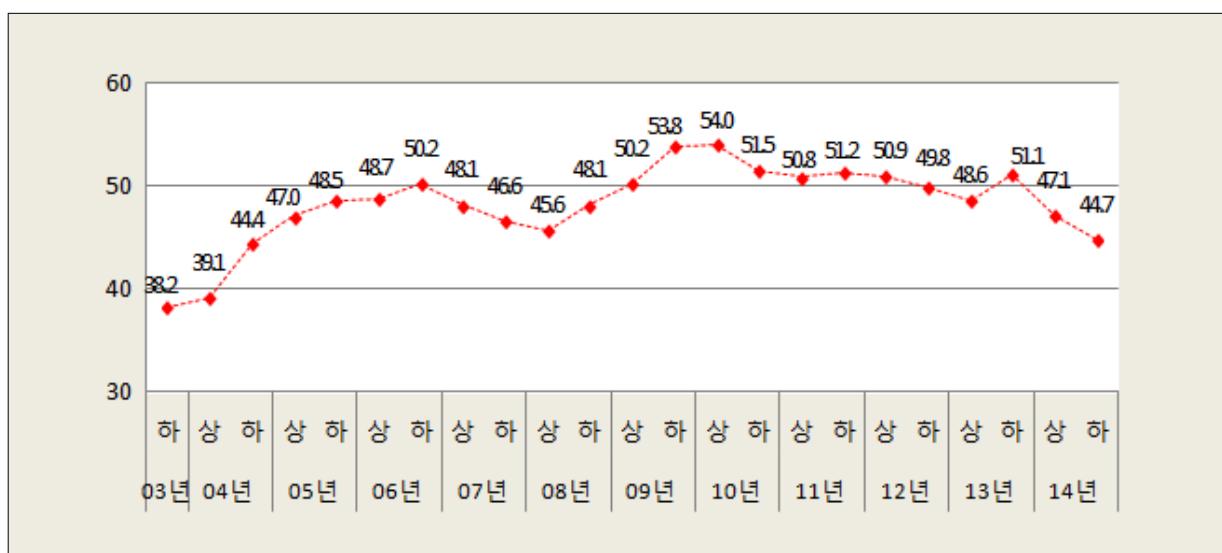
II. 조사 결과

1. 기업호감지수

-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는 44.7점(100점 만점, 보통=50점)

- 지난 2014년 상반기 조사(47.1점)에 비해 2.4점 하락
- 2013년 하반기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2010년 상반기(54.0점) 이후 하락세. 특히 지난 반기에 이어 2반기 연속으로 떨어짐(1년 사이 -6.4점 하락)
- 2005년 상반기(47.0점) 이후 최저수준.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상반기(45.6점)보다 낮은 수치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경제의 회복세에 발맞춰 기업호감도도 증가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 국가경제의 성장 부진과 함께 기업호감도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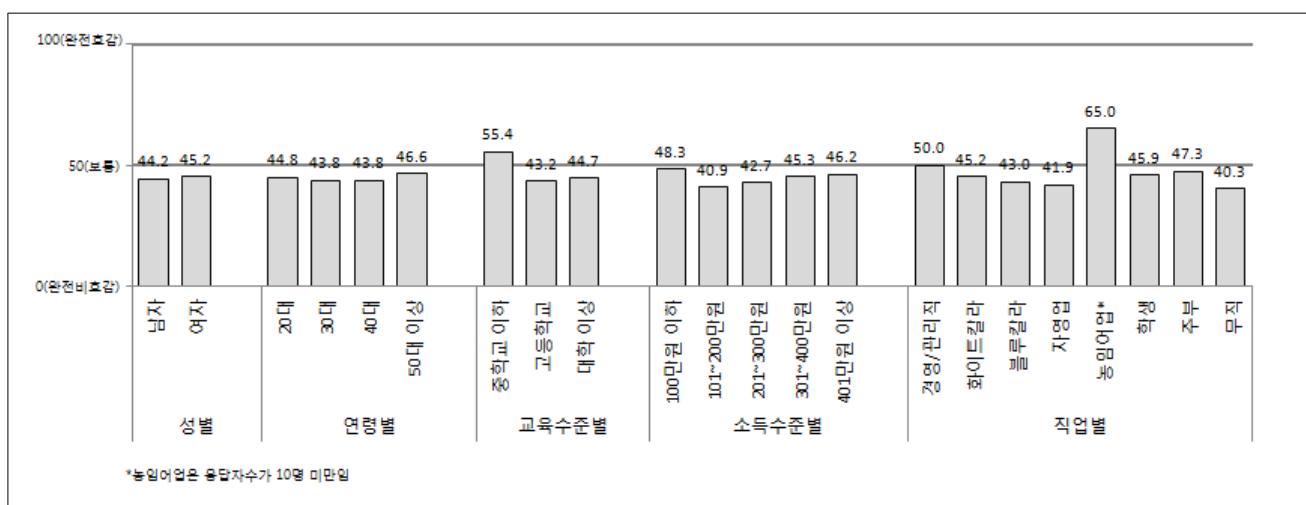
[그림 1] 기업호감지수 변화추이



○ (집단별 기업호감지수)

- 기업호감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중학교 이하'(55.8점), '경영/관리직'(50점), '100만원 이하'(48.3점) 등. 반면 기업호감지수가 낮은 집단은 '무직', '소득 101~200만원' 집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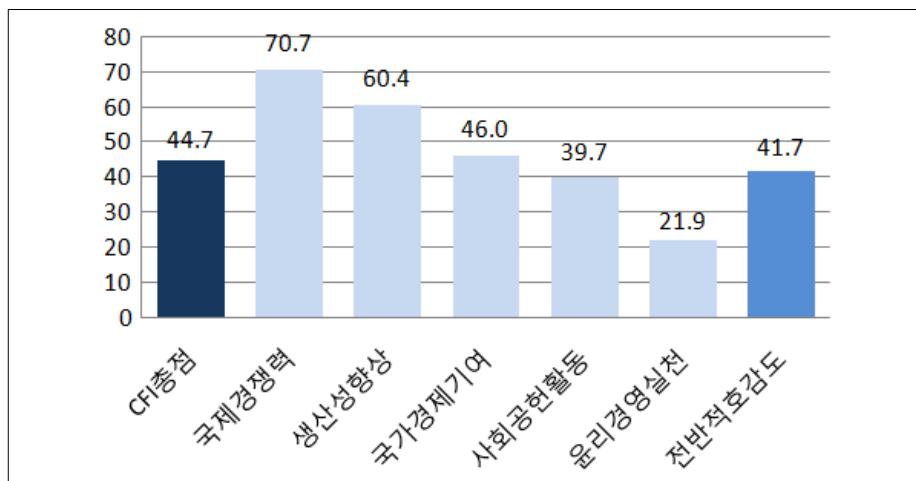
[그림 2] 집단별 기업호감지수



○ (요소별 평가) '전반적 호감도'(41.7점), '국제경쟁력' (70.7점) '생산성·기술향상' (60.4점), '국가 경제 기여'(46.0점), '사회 공헌 활동' (39.7점), '윤리 경영 실천' (21.9점)

- 지난 조사 대비 '전반적 호감도'(-3.8점), '국가 경제 기여'(-3.6점), '생산성·기술향상'(-0.9점), '국제경쟁력'(-0.5점) 등에서 하락
- '윤리경영 실천'(-0.2점)은 비슷, '사회공헌활동'(+0.7점)은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2014년에 들어서면서 기업호감도의 5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가 크게 악화됐고, 특히 '국가경제에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3] 요소별 점수



○ (기업호감도 하락원인 분석)

-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기업경쟁력 하락에 대한 국민우려
- 노동·조세 등 기업관련 정책이슈가 제기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국민인식 확산
- 일부 기업의 윤리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기업 전체에 대한 전반적 호감도 하락에 영향을 미침
- 반면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주도한 벤처투자 활성화 분위기는 사회공헌활동 부문 지수 상승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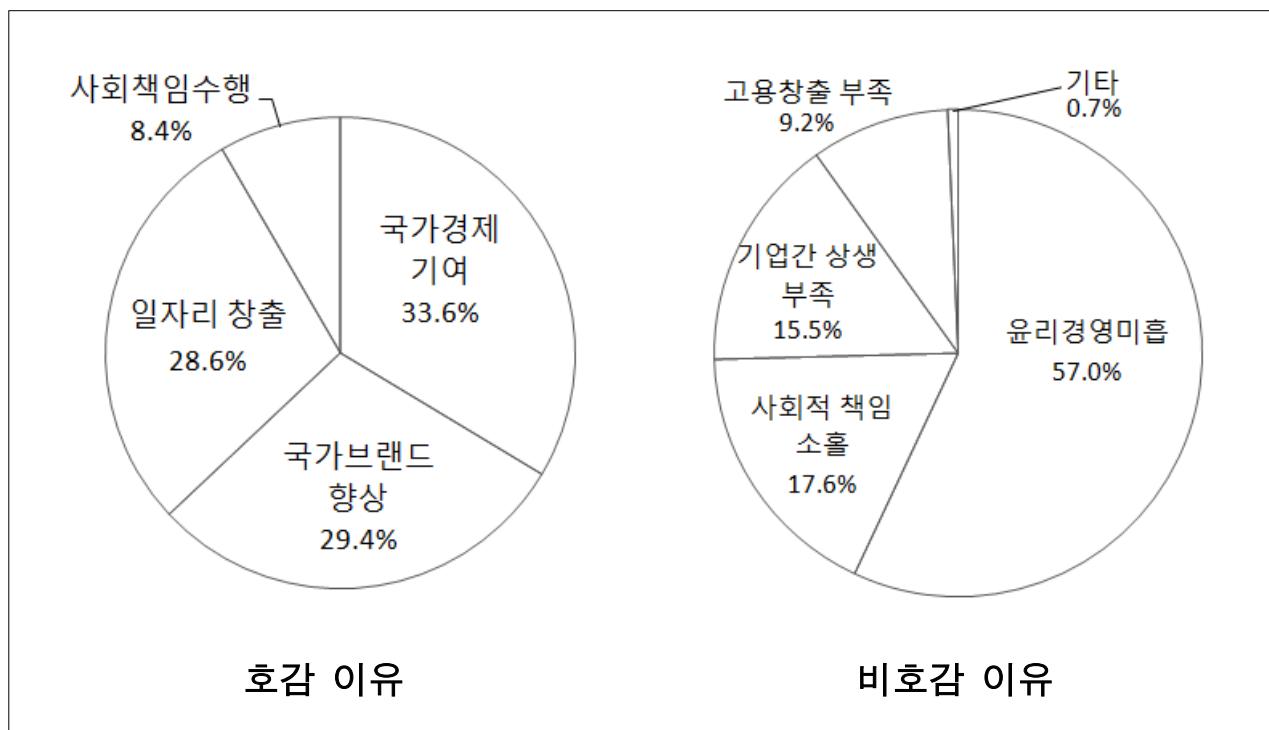
※ 5대 구성요소의 의미

- **국제 경쟁력:**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많이 높아졌다
-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 **국가경제 기여:** 일자리 창출, 세금 납부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사회공헌 활동:** 공익사업, 문화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윤리경영:** 투명하고 깨끗하게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전반적인 호감도:**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2. 기업에 대한 호감 · 비호감 이유

- 호감 이유 : '국가경제에 기여'(33.6%), '국가 브랜드 향상'(29.4%), '일자리 창출'(28.6%),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8.4%) 순
- 비호감 이유 : '윤리경영 미흡'(57.0%), '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 소홀'(17.6%), '기업간 상생협력 부족'(15.5%), '고용창출 노력 부족'(9.2%)' 등
▷|타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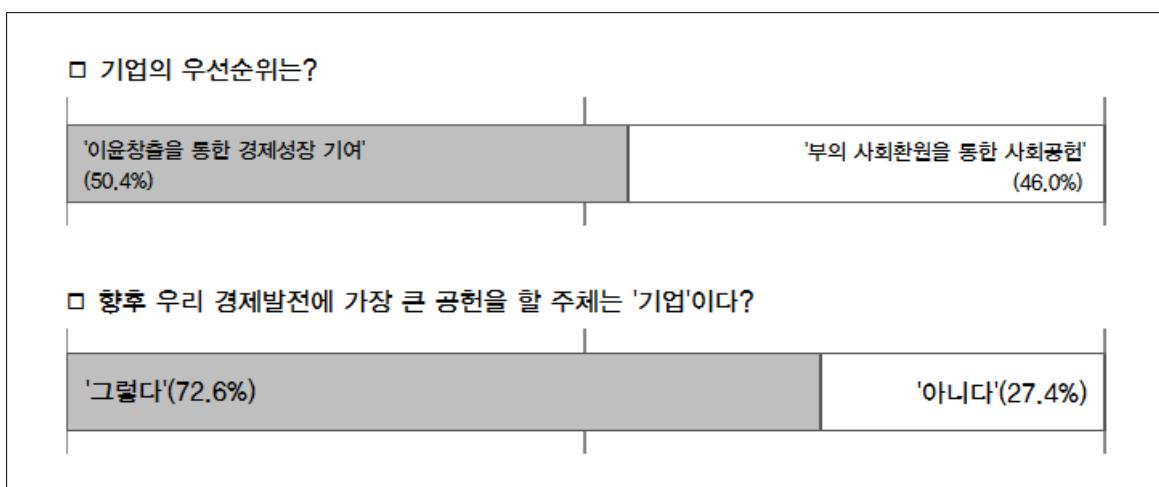
[그림 4] 기업에 대한 호감·비호감 이유



3. 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 기업활동의 우선순위 : '이윤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54.0%) > '부의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공헌'(46.0%)
- 향후 우리 경제발전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게 될 주체는 기업이다 : '그렇다'(72.6%) > '아니다'(27.4%)

[그림 5] 기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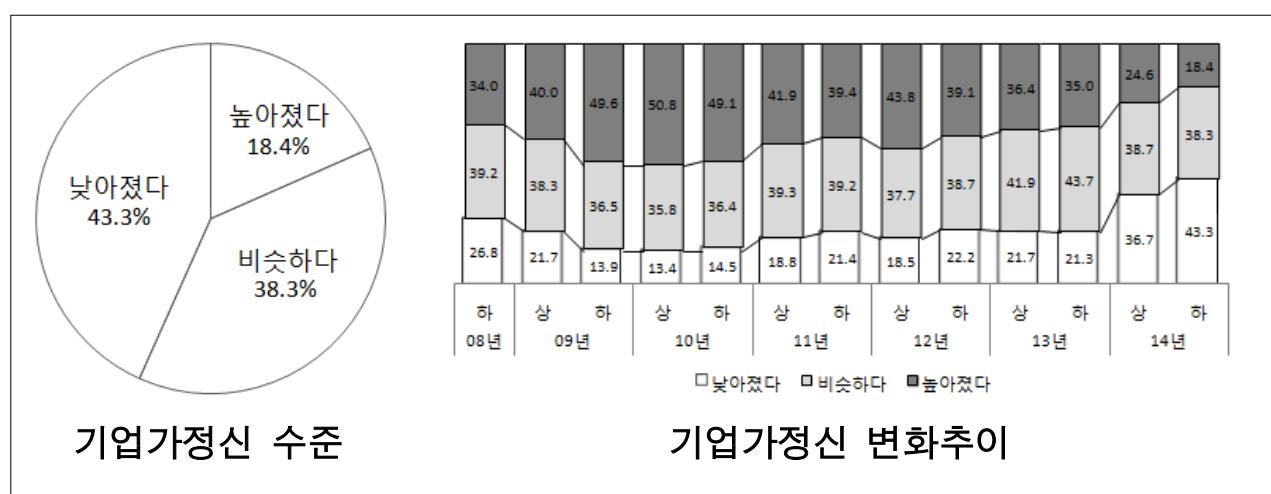


- 국내 반기업 정서 수준 : '높다'(65.4%) > '높지 않다'(34.6%)
- 현재 기업이 가장 먼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 '일자리 창출'(44.6%), '근로자 복지 향상'(22.4%),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이행'(14.2%), '국가 경쟁력 강화'(13.0%), '이윤 창출을 통한 국부 증진'(5.8%) 順

4.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민인식

- 국내 기업가정신 수준 : '예전보다 낮아졌다'(43.3%), '비슷하다'(38.3%), '높아졌다'(18.4%)
 -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조사 시작(2008년 하반기) 이래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응답비율이 최고치를 기록. 반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응답비율은 최저치 기록

[그림 6] 국내 기업가 정신 평가



-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안정'(38.6%), '정책 불확실성 제거'(21.0%), '창업지원 강화'(19.6%), '규제완화'(12.4%), '반기업정서 해소'(8.3%) 등이 필요 <기타 0.1%>

III. 시사점

- 기업호감도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 우려, △노동·조세정책 이슈화, △일부 기업의 윤리적 사건 발생 등을 꼽을 수 있음
 - '전반적 호감도', '국가경제 기여' 부문 크게 하락. '국제경쟁력', '생산성 향상' 하락. '사회공헌활동' 상승. '윤리경영실천' 비슷
- 지난 반기 조사('14년 상반기)에 이어 2회 연속 크게 하락. '05년 상반기 이후 최저점 기록
 - 기업호감도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모든 요소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있음. 이는 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
 - 유가 하락, 세계경제 회복 등에 맞춰 기업들이 본연의 경쟁력강화에 힘쓰는 한편, 기업과 기업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옳은 규범을 찾아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향후 상승 반전될 가능성 있음
 - 국민들은 기업의 문제와 기업 내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별개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보다 엄격하고 미래지향적인 규범과 관행에 따라 경영활동에 임할 필요
-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
 - 우리 경제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지만, 반기업 정서가 높고 기업가정신이 쇠퇴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됨
 -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협업과 융합, 개방과 혁신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기업가정신 회복이 급선무

계층별 CFI

인구통계학적 구분	기업호감도 지표	5대 요소					전반적 호감도	CFI
		국제 경쟁력	생산성/ 기술 향상	국가 경제 기여	사회 공헌 활동	윤리 경영		
전체		70.7	60.4	46.0	39.7	21.9	41.7	44.7
성별	남자	69.5	59.5	47.2	39.7	22.1	40.8	44.2
	여자	71.9	61.3	44.7	39.7	21.7	42.6	45.2
연령	20대	70.7	60.8	40.7	44.2	24.4	41.4	44.8
	30대	69.4	59.5	41.2	38.0	24.6	41.0	43.8
	40대	69.0	58.9	47.2	38.5	19.2	41.1	43.8
	50세이상	74.1	62.6	55.2	38.5	19.5	43.3	46.6
교육 수준	중졸이하	88.9	72.2	55.6	63.0	24.1	50.0	55.4
	고졸	70.0	59.4	47.4	38.6	19.4	39.4	43.2
	대졸이상	70.3	60.2	45.4	39.2	22.4	42.0	44.7
직업	경영 관리	73.1	73.1	53.8	38.5	30.8	46.2	50.0
	화이트칼라	71.4	60.1	46.2	38.8	24.2	42.2	45.2
	블루칼라	66.8	57.3	42.3	41.8	21.4	40.0	43.0
	자영업	66.0	54.2	46.9	36.6	17.2	39.7	41.9
	농임어업	87.5	62.5	75.0	62.5	50.0	62.5	65.0
	학생	72.9	63.6	40.0	47.1	24.3	42.1	45.9
	주부	76.1	66.5	51.4	41.7	17.0	44.0	47.3
	정년퇴직 ·무직	67.0	65.0	41.0	34.0	16.0	36.0	40.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82.5	62.5	55.0	52.5	30.0	40.0	48.3
	101-200만원	66.8	59.3	38.8	38.1	20.9	36.9	40.9
	201-300만원	69.8	57.0	43.3	36.4	17.6	40.6	42.7
	301-400만원	73.2	61.4	47.2	39.4	22.5	41.9	45.3
	401만원 이상	71.3	61.8	47.7	40.7	22.3	43.6	46.2